

제5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국외출장보고서

2017. 9. 27.
국제전략협력실

■ 출장 개요

● 출 장 자 (총6명)

구분	성 명	소 속	직 급	일 정
1	김진환		원장	2017.9.22.~9.25 (3박 4일)
2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	실장	2017.9.22.~9.25 (3박 4일)
3	승재현	국제전략협력실	팀장	2017.9.22.~9.25 (3박 4일)
4	김현정	연구위원실	보호사무관	2017.9.22.~9.25 (3박 4일)
5	이승현	특수범죄연구실	연구위원	2017.9.22.~9.25 (3박 4일)
6	박성훈	일반범죄연구실	연구위원	2017.9.22.~9.25 (3박 4일)

● 출 장 지

중국 하얼빈, 흑룡강대학교

● 출 장 목 적

- 제 5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참석 및 발표
- 중국 동북 3성 대학(요녕대학, 흑룡강대학, 연변대학, 길림대학) 법학
원과의 교류 협력

■ 출 장 자 업 무 분 장

구분	성명	
1	김진환 원장	제 5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참석 및 동북 3성 대학 법학원과 교류논의 진행, 포럼 개회사 및 포럼 좌장으로 참석. 운영회의 참석을 통하여 향후 진행될 동북아 포럼에 대한 방향 제시
2	연성진	제 5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총괄 진행, ‘한국 소년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발표 및 좌장, 동북 3성 대학 법학원과 교류논의 진행
3	박성훈	‘한국의 소년원 출원생 사회정착지원 제도’ 발표 및 토론
4	김현정	‘한국의 소년보호제도의 운영현황’ 발표 및 토론
5	이승현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정책 변화’ 발표 및 토론
6	승재현	제 5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세부 일정 진행, ‘청소년 범죄의 특징과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재범방지대책’ 발표 및 회의 좌장 담당

■ 출장 일정

월 일	출발지	도착지	주요 일정
9월 22일	서울 인천 출발	중국 하얼빈 도착	●회의 준비
9월 23일		하얼빈	●제5차 동북아 포럼 회의 참석 (회의 일정 별첨 참고)
9월 24일		하얼빈	● 제6차 동북아 포럼 개최 운영진 회의
9월 25일	중국 하얼빈 출발	서울 인천 도착	● 서울 도착

■ 출장 보고

* 9월 23일(토요일)

- ☐ 제5차 동북아 포럼은 동북아 지역 미성년자범죄대책을 대주제로 하여 소년형사사법제도, 학교폭력의 형사사법대책, 미성년자의 형사책임법리를 소주제로 하여 개최되었음.
- ☐ 2016년 흑룡강 대학교가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에 참여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동북 3성지역의 모든 대학교가 참석하게 되었음.
- ☐ 첫날 개막식에는 흑룡강대학교 동옥정 법학원장 사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잔환 원장, 흑룡강대학교 정립군 부원장, 요녕대학교 로군 당위원회 비서, 길림대학교 왕충 법학원 교수, 연변대학교 현송학 부교수가 개회사를 진행하였음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 개회사

<개회사>

제5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입니다.

항일 투사 안중근 의사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하얼빈에서 오랜 벗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얼빈에서 개최하는 이번 제5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이후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연변자치주를 포함한 동북3성 지역의 모든 대학교가 참여하는 완전체로서의 동북아포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이 동북아지역 범죄 실태 파악과 대응책 모색 및 형사사법에 관한 교류·협력을 위한 국제연구네트워크를 지향하며 발족한 후 어느덧 제5회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향후 비전과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의 로고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제5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향후 포럼의 지속적인 발전에 또 하나의 큰 발자취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청소년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고 재범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것은 이들이 바로 미래세대의 주역이며, 이들이 미래사회에 갈 중요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엄벌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범죄의 원인이 청소년 인성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도 있다면, 청소년 범죄 대응정책도 이에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인성요인으로 ‘공감’,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이라면 청소년 범죄 해결의 당위적 전제로서 공감의 감수성을 높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응보적 형사사법 정의에서 회복적 형사사법정의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 가정의 해체로 인한 상대적 박탈로 인한 갈등이 문제가 된다면, 전통적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여 청소년 범죄가 남의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3인칭 관찰자적 시점에서 접근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의 문제라는 1인칭 주인공시점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미성년자 범죄대책」을 대주제로 하여 소년 형사사법제도, 학교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이번 제5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한 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함께 준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하얼빈 대학교 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학사일정과 연구 업무 가운데서도 발표문을 준비해주시고 토론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토론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을 통하여 풍성한 학문적 교류와 연대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 진행된 오전 첫 세션에서는 ‘소년형사사법제도’를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과 흑룡강대학교 동옥정 법학원장의 사회로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실장, 김현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공무원, 최군용 연변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정옥취 흑룡강대학교 법학원 부교수, 왕봉 서북정법대학교 형사법학원 강사, 전신 흑룡강대학교 형법학 박사 연구생이 발표가 있었으며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및 어세충 절강공업대학 법학원장이 토론을 하였다.
- 이 세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소년 범죄의 증가가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소년범죄의 강력범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의 소년 형사법에 대한 대응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 이어 진행된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학교폭력의 형사사법대책’이라는 주제하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국제전략협력실 팀장과 왕충 길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연구위원, 조병귀 요녕대학교 법학원 교수, 현송학 연변대학교 부교수, 고용 하얼빈 상법대학교 법학원 부원장, 범묘료 요녕대학교 강사의 발표가 있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 연구위원 및 진경향 길림대학교 진경양 법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였음.
- 이 세션에서는 소년 형사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특히 소년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쉼테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마지막으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법리’를 주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 국제전략실장, 요녕대학교 법학원 형지인 교수의 사회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국제전략실 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 연구위원, 요녕대학교 로군 당위원회 비서, 흑룡강대학교 진건옥 법학원 부교수, 하얼빈 이공대학교 황대위 부교수가 발표를 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현정 파견공무원과 길림대학교 정군남 교수가 토론을 하였음.
- 본 세션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타당한지 또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책임이 개인적 책임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도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이 다루어졌음.



- 이후 김진환 원장의 폐회사가 있었음

<폐회사>

제5차 동북아형사정책포럼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원장 김 진 환

존경하는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그리고 소년사범의 처우를 통한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이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 청소년 문제를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제사회의 문제로 인식하며 힘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 5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은 청소년 범죄의 해결 방안과 대책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제언은 한국과 중국 정부의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의 해결 방안과 대책과 더불어 공통되는 중요한 범죄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전을 기해주신 후룡강대학교 법학원장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범죄 해결 방안과 대책에 관심을 갖고 발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9월 24일(일요일)

- 동북아 포럼 운영위원회 진행

- 2018년도 개최 대학교에 대한 논의

내년도 동북아 포럼은 연변대에서 개최하는 순서이나, 정치적 요인이나 대학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상 가능할지를 연변대 돌아가서 타진해보도록 할 것이고, 개최가 힘들 경우 요녕대에서 흔쾌히 개최하기로 함. 두 대학이 2주 이내에 서로 연락하여 결론을 짓도록 했음. 만일 연변대에서 개최할 경우 행정원에서 재정 지원을 일부 해 주기로 김진환 원장이 1회 때의 선례를 들어 언급하였음

- 2017년도 포럼에 대한 평가

이번에 각 발표자가 발표문에 대한 한-중 혹은 중-한 번역까지 책임지고 만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중국 4개 대학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또 통역을 구하기가 힘든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과거 발표문이 늦게 제출되는 바람에 미리 번역본을 자료집에 넣지 못한 사례들이 꽤 있었고, 향후 미리 발표문을 제출할 경우 행정원에서 발표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통역의 경우, 포럼에 참가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될 경우 통역비를 김진환 원장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함.

- 흑룡강대학교에 대한 감사의 표시

이번 동북아포럼이 모든 준비와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에 대해 포럼을 주최한 흑룡강 대학 측에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특히 훌륭한 통역이 제공되어 회의가 더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함.